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5
제61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u.kr ISSN 2671-9754

02

제381회 임시회 폐회



03/07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특집



08/09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초록 물결 가파도의 봄 제주섬 아래 소담하게 자리잡은 가파도는 초록의 물결로 가득하다. 5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푸른 희망을 품은 밝은 제주를 꿈꾸며 도민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갈 시간이다. / 미디어팀 김명선

“대정해상풍력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9일 제381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지난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 동의안은 2022년까지 대정읍 동일1리 해안가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상 5.46km²에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총 100MW)를 설치하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의 안건 표결에 앞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동의

안에 반대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양 의원은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통과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기름인 대정읍에 찬물을 뿌려 폭발을 일으키는 꼴”이라며, “주민들은 10년 후, 100년 후에도 함께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정읍으로 남길 바라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제2공항 관련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폐회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4월 29일 제381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찬반 논쟁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제주도, 개발사업 찬반 갈등관리 실종”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번져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모두 제주의 자연과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 찬반 논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주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을 어찌 봐야 하겠나.”라며, “망각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한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언어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해석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가 쓰이느냐에 따라 대화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진정한 설명과 이해는 되돌아오는 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맥락이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며 단순히 대화가 오갔

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면서, “우리 의회에서 제한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재난에 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는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 등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주시와 같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해고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제주도 역시 고용분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2공항 갈등 해소특위 활동기간 연장 제8차 회의, 연장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에서는 4월 22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안건을 채택했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 후 이를 토대로 사전토론회 및 연속 토론회 개최 등의 구체적인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3월 27일 수립·의결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나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제2공항 건설 관련 이해당사자 등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제8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토론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활동이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내실 있는



토론회 개최 등 도민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24일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 내용은 주요 발언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과 인터넷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 및 답변 요약 (2020년 4월 21일 ~ 23일)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공약 추진 계획은



▶강연호 의원(미래통합당, 환경도시위원회)

지방도 유지보수 등 관리측면에서 도와 양 행정시간의 현저한 예산 차이 발생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은,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공약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은.

▶원희룡 도지사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분석·검토해 나가면서 필요시 제주시 지역에도 도시민유치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귀농·귀촌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한 입장은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도내 대기업 면세점의 추가 진출 반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문화분야 코로나19 피해 극복 관련 포괄적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및 관광산업의 회복방안은, e스포츠의 제주 전략산업 추진 방안 검토 의향은.

▶원희룡 도지사

기획재정부의 제주지역 면세점 추가 지정에 대해 도내 소상공인과 상권과의 이익균형 문제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냈고, 지금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정책 계획은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존 고용 지원정책의 한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제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계획은,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융자지원 확대 방안 견해는.

▶원희룡 도지사

기업과 일자리, 가계 생계 3가지를 동시에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무너지고, 산업 기반자체가 해체되기에 기업과 일자리, 가계 생계를 동시에 살려야 한다.

탐라대 부지의 스포츠메카 육성 방안은



▶강시백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 중대본부의 대응책에 한발 앞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전략 유지 방향은, 범도민 생활스포츠 활성화 의향은, 탐라대 부지에 동계전지훈련 관련기관 등을 유치해 우리나라의 스포츠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원희룡 도지사

스포츠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도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JDC에 대한 도민통제 필요성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의 추가진상 조사 계획은, JDC에 대한 도민통제 필요성은, 행정사무조사 권고사항 후속조치 및 7단계 제도개선 계획은, 제2공항 갈등 해결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시 대책과 현 제주공항의 개선 대책은.

▶원희룡 도지사

제주에서, 제주 미래에 영향을 주며 개발사업을 하는 JDC에 행정과 의회, 감사기구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로 넘어오든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합해 구성하든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부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어떻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인권 및 부실 운영 문제 발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과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추진 계획은,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입장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필요성과 제주 권역 질병관리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원희룡 도지사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으려 온 사람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방법론으로는 검토할 사항 많지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학대한 사람들에 대해 대안이 없다고 다시 맡기는 일을 없어야 한다.

드림타워 준공에 따른 종합 교통대책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

드림타워 준공과 도시계획 도로 공사완료 예정시기 불일치에 따른 노형 오거리 혼잡 가중 예상에 따른 대책은, 드림타워를 비롯한 주변 건축 인허가 및 준공으로 인한 신규 교통 및 주차난 유발 등으로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가중 전망에 대한 종합적 교통대책은.

▶원희룡 도지사

드림타워를 비롯한 주변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정착해 나감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시행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포스트 코로나19 관광위기 극복 방안 말해달라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광위기 극복방안은, 관광국을 비롯한 관광유관기관을 통합한 관광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서귀포시 체육인프라와 연계된 옛 탐라대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원담실태조사 실시 등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의사는.

▶원희룡 도지사

야간관광활성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사실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게 현 실정이다. 관광객들도 거리나 공간들이 너무 어둡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에 대한 민감한 계층에 대한 불안감도 따르고 있다.

기상이변·기후변화 따른 농업분야 대책 있나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코로나19 연착륙을 위한 제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계획은, 화재·돌풍 등 재해발생 시 하우스시설 우선 지원방안 등 기상이변·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은,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은.

▶원희룡 도지사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전기합선 등 화재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구상은



▶강총룡 의원(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감귤 육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제주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타 지역 감귤재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은, 지역 축제에서 타시도에서 입찰 받고 제주지역에 하청 주는 사례 개선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견해는.

▶원희룡 도지사

현재 철새 등 공항 입지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환경부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정상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제2탐라영재관 조성 필요성 공감하나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행정자치위원회)

제2탐라영재관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 대응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계획은, 제2공항 건설 관련 반대측과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공론화 작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원희룡 도지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해보겠다. 현재 탐라영재관은 위치도 치우쳐 있고 건물도 30년이 지나 노후했다.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구정책기금 조성 필요성 대한 견해는



▶한영진 의원(민생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용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구정책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관련 수행 계획은, 복지관련 기금의 통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원희룡 도지사

인구정책 사업에 수반되는 재원은 기금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하므로, 인구정책기금 조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 대책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달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코로나19 관련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제2공항 추진에 대한 현재 입장과 군사공항 배제를 위한 제3차 협약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은.

▶원희룡 도지사

종합계획은 전문가들이 이상적이고 규모가 커서 무지개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나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단과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할 방법이 없어 축소된다.

신항만 건설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은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중산간 지역 안전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은, LNG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견해는,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신항만 건설 관련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은.

▶원희룡 도지사

사업시행 전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 제주신항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위한 개선방안은,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 예방 대책은,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의향은, 제주외항 전망대, 공연장, 용두교 등 활용방안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원희룡 도지사

제주도가 직접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형태를 마련, 가급적 올해 안에 도입하도록 하겠다. 제주의 경우 제주도상인연합회도 적극 협조에 나선 만큼 대대적인 제주의 마케팅 인프라로 설계해 나가겠다.

지역화폐 발행 공감대 필요성은



▶고은실 의원(정의당, 교육위원회)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생략 및 부지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설득절차 생략 등으로 갈등을 양산했다는 데에 동의하는지, 장애주류화정책 입장은, 지역화폐 발행 입장은, 송악산 자연문화적 가치에 대한 입장은.

▶원희룡 도지사

제주의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 관광 마케팅 관련 멤버십 연계,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도입, 가맹점 확보 등이 세 가지를 결합시켜 관광 수입 유입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연구하겠다.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의견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

원도정 6년 평가는, 원지사는 행정가인지 정치가인지,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의 가시적 성과 및 한계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책은.

▶원희룡 도지사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제주도는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 추진 계획은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추진 계획은,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대책은, 제주 공공복지전달체계 진단에 대한 견해는.

▶원희룡 도지사

재난안전 조직 확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공익형 직불금에 대한 입장은, 월동채소 및 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 방안은, 화순항 마리나 사업 추진방안은, 깃녹음 확산과 마을어장 환경 개선방안은.

▶원희룡 도지사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제주에 적용 가능한 최신기술의 도입 등 최적화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동시에 CFI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수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비 방안 있다



▶김장영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은. 통학로 안전 대책은. 공공기관 주차시설 확충 계획은. 학생 비만문제 해소 대책은. 지역별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입장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원희룡 도지사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3개소를 지정하여 37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2021년에 정부 예산에 설계비 23억 원이 반영될 계획으로, 앞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대책은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은.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한 국비확충 방안은. 실효성 있는 제주혁신도시 조성 및 주민 상생방안 추진 입장은. 신장항 피셔리나형 국가어항 추진 계획은.

▶원희룡 도지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 등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제주형 먹거리 순환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 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 해결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및 답변 요약 (2020년 4월 24일)

교육청 백서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9월 학기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제주 환경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백서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맞춤형 학습지원학습을 운영해 학습이 느린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이석문 도교육감

정부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 돌봄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 방안은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책임지도제 활성화 방안은.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 계획은. 초등돌봄교실 대기 학생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실 운영을 늘릴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지역에도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할 의향은.

▶이석문 도교육감

제주형 자율학교를 꾸준히 확대해 2022년도에는 도내 학교의 29%까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와 더불어 중규모학교, 고등학교의 신청을 독려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모델을 확장해 나가겠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행 여부와 의견은



▶한영진 의원(민생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치원 유아에게 지원되는 추가 교육비를 어린이집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선 도교육청과 도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이 요구되는데, 실행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은.

▶이석문 도교육감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영어교육도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교육의원 선거제도 운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도교육청이 발주한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교육의원 피선거권 확대에 대한 견해는.

▶이석문 도교육감

교육의원 제도를 만들었던 당사자가 저였다. 그 흐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IB교육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세부 계획은



▶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긴급추경 실행 의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은. 도교육청의 IB교육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예산과 인력 투입 계획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도민 신뢰 확보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은.

▶ 이석문 도교육감

1차적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되 최종적으로는 제주 시·동(洞)지역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다자녀 학생 지원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달라 원격수업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데, 활동보조인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은.

▶ 이석문 도교육감

도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교육청은 적극 검토하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성화고 개편 어떻게



▶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시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대안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세대가 겪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데, 양성평등교육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성화고 개편 방안은.

▶ 이석문 도교육감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에 적합하도록 우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직능단체,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의 학교개편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등교 개학 이후 학생건강 관리 대책 있나



▶ 안창남 의원(무소속, 환경도시위원회)

보건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12곳인데, 배치 기준을 개선해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의무교육 대상인 만 3~5세 장애유아가 늘면서 특수학급 확대가 필요한데, 추진 계획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확대 추진 의향은. 등교 개학 이후 학생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은.

▶ 이석문 도교육감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시스템 활용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 시 및 점심시간 전에 발열 체크 등 모니터링하겠다.

정책평가, 관리 조례 제정 계획 있어야



▶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동인초 부지가 매입 이후 17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학생복합컴플렉스 건립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이 6년째 표류 중인데, 이를 다시 추진할 의향은. 정책평가,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이석문 도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다. 매년 자체평가보고서와 격년별로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하수 보전교육 운영 방안 마련해야



▶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한 입장은. 지하수 보전교육 운영 방안은.

▶ 이석문 도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2014년부터 매년 '제주지역 기후변화의 이해'를 주제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29명이 이수했다. 앞으로도 지하수를 비롯한 제주 생태환경에 대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해나가겠다.

생생 의정활동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강화, 부당한 사무처리 예방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사진)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강화 및 의무적 감사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기간이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

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연속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주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 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한 내용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제도방안 마련 강민숙 의원, 제주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대

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공공미술의 성격과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작품 설치시 주민과의 협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공공미술품의 설치와 함께 지역 문화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조명하고, 공공미술 활용방안을 명시하여 공공미술의 확장성에도 제도적 방안을 모

색하였다.

제주도는 현재 약 800 여개의 공공미술 작품이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민숙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미술이 보다 더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술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스포츠 산업기반 조성, 전훈 지원 근거 모색 양영식 의원, 제주도 e스포츠 진흥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e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로 e스포츠 전지훈련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및 전문가 자문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주 e스포츠 산업 활

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제주 e스포츠 기반조성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 토론자인 강도경 e스포츠 감독 및 양영식 의원은 제주의 e스포츠 산업 기반 구축과 현실적인 지역 차별화 전략으로 e스포츠 분야 전지훈련 유치를 논의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e스포츠는 한국이 가장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한 분야

로 게임 및 방송 등의 연관산업을 활성화를 목표로 많은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전지훈련에 대한 e스포츠 프로게임단과의 논의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진행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영식 의원은 “제주가 e스포츠 산업의 차별화된 산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관광 활성화·관광지원서비스업 지원된다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사진)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근거마련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도내 관광

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등의 행정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제주관광에 있어 야간관광이 가장 취약하다. 야간관광은 주로 낮시간대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야간까지 늘려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야간관

광 명소 발굴 육성 및 홍보마케팅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이 일정정도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 거래하지만 그동안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을 관광에 포함시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석달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어린이가 함께 하는 참여형 학교놀이터

고은실 의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사진)은 어린이날에 맞춰 어린이의 놀이 환경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학부모·교사·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학교 놀이터 등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디자인, 설계, 공간 확보 등에 참여하여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금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며, 많은 학교 놀이터를 비롯한 동네의 놀이터에는 틀에 박힌 듯 정형화되고 아이들의 흥미와 눈길을 끌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로 구성된 것을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적 대책 구축 조례 제정 강철남 의원, 제주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7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2018년 기준 인구증가율은 1.9%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

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주민보다 관광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를 추계하도록 하였으며,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생활인구란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를 말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환경 및 생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불구하고 이를 산출해 낼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정주민 및 유동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를 정기적으로 추계하도록 한 바, 향후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등의 적정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현장방문

원격수업 및 고교학점제 운영현황 참관

학교 현장 의견 듣고, 개선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7일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방문하여 수업 참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널리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서, 서귀포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원격수업을 참관, 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3월 1일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정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지원, 학생 맞춤형 학습관리 등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강시백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현안 보고를 받았다.

동한두기 펌프장 공사 현장 의정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점검 및 협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미래통합당)은 4월 24일 용담1동 소재 병문천 하류 일대를 방문해 병문천 하류 하천 재해 예방사업 및 방문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현장방문을 통해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병문천 하류 복개지(용담1동, 삼도2동 일대)는 1995년 탐동 매립이억환수 사업으로 전면 복개돼 주차장 및 도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왔다. 설치 20년이 지나 시설물 노후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6년 8월 병문천 하류 복개지 정비사업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사업비 230억 규모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8월 준공예정을 앞

두고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용담1동의 지역구를 가진 김황국 의원도 하수도사업본부와 제주시 안전총괄과, 용담1동 등 관계기관에 제안하여, 하절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히 마련되었다.

이날 김황국 의원은 ▲ 재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기 완공, ▲ 훼손·파손된 주택 등의 보수, ▲ 도로와 마을진입로 간의 단차, ▲ 인도교 설치, ▲ 병문천 범람시 빗물 및 하수 처리 등 제기된 민원을 지역주민과 함께 직접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현장과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협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병문천은 제주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걷는 올레길 17코스에 해당하는 곳으로 용두암과 용연계곡을 거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준공을 앞당겨 지역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하절기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주문했다.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8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현안사항 청취와 관계자 격려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공립 치매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는 중인지,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소방안전 시설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고태순 위원장은 “서귀포 지역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개원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로 읽는 제주



지극히 개인적인 봄의 역사

이재

우리는 섬에서 만나 섬에서 끝났다.

서귀포 바람 속에서 만난 쥐를 닮은 꼬끼리를 닮은 낙엽을 닮은 동물이 안녕을 던졌다 반 년 정도 화답의 춤을 추다가 너를 만났다 낙타를 닮은 화산을 닮은 돌담길을 닮은 너는 정오에 만 섬내음의 인사를 받아 적어 여섯 살의 자신에게 안부를 부친다고 했다 봄향기를 가득 담은 편지가 올레길을 달음박질치는 아이의 종아리를 지나 지팡이를 짚고 웃는 할머니의 옷깃을 지나 시티백에 실려 가는 짜장면의 향기를 지나 꽃자왈을 달리는 말갈기를 지나 중문의 네온사인을 뚫고 이호테우 해변까지 날아 마음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사랑을 했다라는 한 문장이 이 시의 대미를 장식한다

아니다 나는 이별을 했다. 라는 소심한 고백이 이 시의 모순이다 바람의 말은 저속으로 달리는 버스의 차창에 난기류 같은 미소로 쌓였다 밤의 시간마다 기억의 폭포에서 포말이 되는 슬픔을 간직한 너는 비밀이 많았고 웃음이 많았고 속삭임은 무자비했다 아름답고 나쁜 년

잃어버린 것이 말이었는지 말을 닮은 사람이었는지 말을 타는 섬이었는지 쌍봉낙타였는지 웃고 있는 너의 사진이었는지 바람은 말해주지 않는다 참꽃 가득한 꿈속에서 가위에 눌리고 나면 창밖 하늘에 새순 같은 노을이 걸렸다 잠시만 우울했던 나는 어깨 위에 내린 비늘 같은 슬픔을 베고 추억의 목책을 신나게 두드렸다 돌담 아래 목은 향이 흐르다 잿빛 하늘에 콘비프수프향이 흐르다 긴발톱멧새 부리에 매달린 말 못할 고백으로 흐르다 이젠 누구에게 인생의 복권을 걸어볼 것인가 꼬리가 찢긴 바람은 해변의 깃대에 매달리고 나는 혼자 중국집에 잘 간다

그러나 익숙한 울음의 근원지는 결코 멀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은 끝나버린 사랑의 소식을 온몸으로 풍겼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문장 몇 개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저녁은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렸다 이젠 그만 불어도 그만이라는 각오로 살아가야겠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검은 말 한 마리가 길게 서있다 이것은 섬에서 시작하여 섬에서 끝난 우리의 마지막 시퀀스다 반전 없는

*정지용의 시 「백록담」 부분

“이것은 섬에서 시작하여 섬에서 끝난 우리의 마지막 시퀀스다 반전 없는” 시의 마지막 행을 다시 읽어본다. 이재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읽을지 기대가 된다. 시퀀스(sequence)는 영화에서 몇 개의 관련된 장면을 모아서 이루는 구성단위를 가리킨다. 가령 한 편의 영화가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서 구성된다고 볼 경우, 그 에피소드가 곧 ‘시퀀스’이다. 이재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대구시립이다. 최근 대구 뉴스가 많이 나와 이재물 자주 생각하게 된다.

대구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구 출신 지인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재물 알고 나서야 대구의 언어가 얼마나 친절한 소리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시 대신 사진을 찍는 이재는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는데 찰칵찰칵 소리를 내듯이 누구에게나 “참 좋네. 참 좋아요.”라는 칭찬의 말을 달고 산다. 이재 시인이 제주도에 내려 왔을 때 여러 명과 함께 잠시 여행을 했을 뿐인데 자주 생각났다. 그러니 그는 최소한 말의 기운을 아는 시인이다. 확산이 능한 바이러스로 인해 대구는 물론 전국 아니 세계가 다 불안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가장 빠르게 침투하는 백신은 긍정의 말일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 봄꽃이 한창이다. 이재의 시「지극히 개인적인 봄의 역사」는 제주 봄꽃 감상하듯이 읽어야 한다. 목련은 목련의 아름다움이, 벚꽃은 벚꽃의 아름다움이, 유채꽃은 유채꽃의 아름다움이 있다. 긍정의 마음이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리라 믿는다.

글 김진숙/시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12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8회/71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1.(목) (8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하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3.(월) ~7. 23.(목) (11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9월	제386회 임시회	9.16.(수) ~9.22.(화)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7회 임시회	10.13.(화) ~10.29.(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8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89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청탁금지법 Q&A



Q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A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 제2호)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것은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 요건(공개적으로 요구)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함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탐방객 숲, 쉼터조성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자리에 숲 조성을 통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42년 전의 숲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는 1970년대 등반로 입구 양쪽으로 숲이 우거진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고 진입로 주변 쉼터는 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시원한 생수를 미시고 땀을 닦으며 산우들과 한라산 예찬하면서 숲 사랑 활동하던 지난날을 회상해 볼 때 도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

는 성판악 휴게소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성판악 탐방안내소 주차장이 78면에 불과하여 연중 심각한 주차난이 야기됨에 따라 휴게소를 철거한 후 21면이 늘어난 9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한다. 30여 년을 한라산 사랑하며 숲 활동가로 봉사하는 처지에서는 성판악 휴게소는 42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의미 있는 공간으로 각인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차원을 떠나서 숲 조성을 통한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유익하리라 생각하며 오히려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을 위하여 21면에 불과한 주차면 확보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미세먼지 없고 늘 푸른 청정 제주를 위한 효과적 방안임을 숲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고윤권
/ (사)제주생명의숲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청렴'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단편 중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제목의 소설이 있다. 평범한 농부가 악마의 꾀에 빠져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동안 걸어온 만큼의 땅을 갖기 위해 숨을 참아가며 걷는다. 그러다가 저물녘이 되어 서야 간신히 돌아오게 되지만 농부는 쓰러져서 죽게 되고, 결국 농부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의 무덤으로 사용할 반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였다. 참 허무하면서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간의 욕심에 관하여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이다. 만약 농부가 현재 경작하는 땅의 크기에만 만족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악마는 '인간이 끝없이 갈구하는 욕심은

결국 과멸을 불러오는 죽음으로 밖에는 멈출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던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 그럼 욕심이 없는 삶은 과연 존재할까? 우리는 욕심과 상반되는 단어로 '청렴'을 떠올린다. 국어사전에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정의한다.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필자는 진정 청렴한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속에 진정 청렴한 마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선행에 청렴은 실제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특히 약자를 배려하여 마스크를 양보하고 기부하는 사람, 지금까지 모은 용돈을 전액 기부하는 학

생,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산을 기부하는 어르신들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동화에서만 읽었던 청렴의 세계 속에 실제 들어 왔다 자부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중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나라를 찾아 올 것이다. 하지만 청렴을 늘 필요로 하고, 청렴에 욕심이 많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탈출하는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 공직자들이여! 청렴에 욕심을 내자. 공직자가 청렴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척도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최순민 주무관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p>토론회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전문위원실별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활발한 토론회가 열립니다.</p>
<p>인터넷방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폐회식,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p>	
	<p>회의록 열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회의록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p>
<p>드림제주21 등 소식지 발간 제주의 주요 이슈를 담은 계간 '드림제주21'과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월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와 계간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064-741-2285</p>	
	<p>의정자료센터 의정자료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행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열람 및 대출, 정적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064-741-2305</p>

포토뉴스



농익은 계절의 빛깔

대정읍 가파도는 청보리 세상이다. 온통 초록으로 물든 섬에는 집집마다 알록달록한 지붕도 자기의 색깔을 뽐낸다(사진 위쪽). 남원을 신레리에 수국이 활짝 핀 가운데 저 멀리 한라산도 다소곳이 제 자리를 잡았다(사진 아래쪽). / 미디어팀 김영선

제주의 스포츠인권,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는? 제6차 제주체육진흥포럼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대표 이승아 의원)은 4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 스포츠 현장의 실효적 인권보호체계 운영에 대한 청취 및 업무 공유를 위해 제주에 오는 시기에 맞춰 제주 스포츠인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아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에 제주

특별자치도 스포츠 인권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의 제정과정 중 간담회의 부족 등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스포츠인권에 대한 문제는 선수들이 학생시설부터 고질적인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승리 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미투운동에서 드러난 스포츠계의 인권문제가 문체부를 중심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사되어 1단락 되면서 7차 권고문까지 발표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제주에서도 발빠른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이후 지난 4월 16일 <스포츠인권조례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①스포츠인권에 대해 적용할 대상의 범위문제, ②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된 상태에서 체육인에 대한 정의의 문제, ③ 위원회의 심의의 문제, ④ 신고 및 상담위탁의 문제, ⑤ 장애인체육의 포함 여부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의정 이슈 브리프 온라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권한 확대와 피해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에 관한 의정 이슈 브리프를 4월 28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의 종류,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과 감염병 관련 법·제도의 정비사항, 감염병 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감염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와 이에 따른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경우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 대응과 관리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했으나, 감염병 관리 역량이 조직, 인력, 시설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역할분담 하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 개선 일자리 워킹그룹 1차 회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김경미 의원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 1차 회의가 4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1차 회의에는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6명이 참여했다.

노인 일자리 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김영관 지사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 및 김용국 팀장(도 노인장수과), 여성 일자리 정책 및 현황 관련 김

희정 관장(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윤인성 팀장(도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발표가 진행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단순화 필요, 전담기관의 전문성 강화, 정책과 정책의 콜라보레이션, 일자리 다양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장애인 일자리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제도개선 및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제주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강화를 위하여 워킹그룹 회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관광안내사 고용실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경용위원장)는 4월 28일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관광안내사(관광통역안내원·국내여행안내사)의 고용실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한 관광안내사 협회 임원진들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신청접수 중이나 근무증빙자료 마련이 쉽지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제도마련, 의무적 보수교육, 로컬 가이드제 도입, 무자격 가이드 단속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관광안내사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차원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관광안내사의 고용실태조사, 고용안정화 개선방안 마련, 제주관광시장 구조의 개선 등 도, 의회, 관광업계가 머리를 맞대 관광종사자들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스스로 제주정책을 만든다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주민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20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 주민의 시각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발전 방안을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총 4가지 분야로,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접수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



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실무적 검토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